

김별아의 문학과 삶



영신이의 편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요가 강좌에 등록한 나 너 달째가 되었다.

어느 하루 정자 앞을 지나노라니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흑발의 '새댁' 한 명이 끼어 앉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다.

종교칼럼



방길툐 원불교 나주교당 주임교무

요즘 시대의 화두는 갑과 을의 불평등한 관계이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부자 중에서도 최상층은 더 큰 부자가 되며 중간층은 공동화되어 가난한 사람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기고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동장군의 위세가 있었다 싶을 정도로 어느새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빨라진 여름은 춘하추동의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도 주지 않고 우리를 선풍기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다.

줄지 않는 여성흡연... 보건당국 적극 금연정책 필요

여성의 흡연은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해악이 큰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흡연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균 수명은 37세로 추정된다. 독일에서 실시된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시대 30세의 모습은 지금의 72세와 비슷하다고 한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고교 200여 년 만에 인간의 삶을 두 배로 확장시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젊음은 너무 짧고 감당해야 할 노년의 고통은 너무 크다. 신조어로 '노후 난민'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기본 생계가 어려운 노년층이 늘어났고, 2009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층의 45%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미래만큼이나 불명확하다. 더 이상 젊지 않으나 아직 늙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움켜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불평등의 고리

차별을 기(氣)의 차이로 간주하여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며, 보편적 불성(佛性)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차별을 개인의 업에 따른 업보로, 신(神)의 피조물로 신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차별을 신의 뜻으로 돌리고 있다.

모든 종교와 사상은 이념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나 현실적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보편적 태극의 리(理)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의 남녀 귀천의

의 흔적이 주름살로 새겨지기 시작한 체로 머지않은 미래를 예상하며 불안해한다. 이 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의 평범한 중년, 사오십 대의 모습일 것이다.

얼마 전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의 친구 영신이가 50세를 맞는 아빠의 생일에 보낸 편지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게시판'에 올라왔다. 편지를 받은 당사자인 영신 아빠가 혼자 보기 아까워 공개적으로 '아들 자랑'을 한 것이다.

"... (상략)~ 아빠 이제 50살이네.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100살까지 살 테니까 이제 딱 반 왔다. 나는 항상 말하지만 아빠가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아빠가 제2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 항상 아빠 눈을 보면 뭔가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여. 그럴 때마다 난 너무 아쉬워. 아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꿈을 못 찾았다는 게. 하지만 아빠가 꿈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난 정말로 아빠가 감정 표현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좋은 건 좋다. 싫으면 싫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아빠가 우리 가족을 마음의 안식처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 그래도 날 이렇게 18년 동안 멋지게 키워 줬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도 엄마, 아빠일 거야. 아빠 나에게 최고의 아빠야! 사랑해!"

18살짜리 아들이 50살의 아빠에게 바라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라거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반 고비에 이르러 얼마간 지치고 얼마간 무력해진 아빠에게 꿈을 가지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원하는 무언가를 찾으라고 격려하는 것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자랐나, 내 자식 남의 자식을 떠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에 모두들 가슴이 뭉클해졌다.

조금은 진부한 말이지만 오늘, 바로 지금은 내게 남은 삶의 나날들 중에 가장 젊은 순간임이 분명하다. 꿈은 늙지 않는다. 꿈을 찾아오는 여정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노년 에 대한 불안과 공포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실험과 기대로 발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길어진 수명만큼 제2의, 제3의 삶을 꾸려갈 진정한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영신이의 편지 한 통이 짐짓 조로해가는 나를 따끔하게 일깨운다. <소설가>

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의 대가를 알아야 하며 불평등은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원불교의 교조인신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되므로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되도록 강자약자가 진화되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소수의 강자는 다수 약자의 도움이 없이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없으며, 강자의 풍요는 다수 약자의 노고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감성적으로 강자에 대한 인신공격의 비난이나 약자에 대한 동정에만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노력에만 미루지 말고, 강자와 약자가 쌍방 이익이 되는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집단단체가 요청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불평등의 고리는 끊어가야 한다.

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자연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 헤룰 수 없지만 인재(人災)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물놀이 사고는 예방만이 최우선이다. 그럼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어떠한가?

부모나 교사에게 들길 경우 꾸짖어 두려워 대부분 혼자 있을 때나 들리지 않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20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여성이나 첫 만기출산 최소한 5년 전에 흡연을 시작한 여성 그리고 담배를 장기간 피웠거나 흡연량이 하루 20개피 이상인 여성은 모두 유방암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자궁 외 임신 가능성이 4배나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즉 흡연 여성은 수산관(난소로부터 난을 받아들여 배출하는 관)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양이 비흡연 여성보다 두 배로 늘어나 이 많은 양의 단백질이 수관관 벽에 붙어관이 수축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수정체가 자궁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도주차량 방치해서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겉돌고 있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거나 부상을 입힌 채 달아나는가 하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주하는데도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단속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용 인력이 없고, 음주 단속 시간과 장소도 '뻥한 지역과 시간대'에 이뤄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 9685건, 전남 9954건 등 1만963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경찰의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추격을 포기하

社說

2015 광주U대회 이제 준비에 만전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27회 하계유니버시아드가 2015년 광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지난 17일 밤 화려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드디어 빛을 광주가 '대학생의 올림픽'인 하계U대회 개최 바통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2년이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광주시와 시민,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역량을 결집, 성공 대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무겁다. 광주U대회는 170개국에서 2만여명의 선수와 심판, 보도진 등이 참여해 12일간 21개 종목에서 350여 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경찰이 음주운전 도주차량 방치해서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겉돌고 있다고 한다. 음주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매달거나 부상을 입힌 채 달아나는가 하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도주하는데도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 단속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용 인력이 없고, 음주 단속 시간과 장소도 '뻥한 지역과 시간대'에 이뤄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광주 9685건, 전남 9954건 등 1만963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경찰의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이 추격을 포기하

無等鼓

1887년 3월 6일 저녁 이스틀이 짙게 깔린 경북궁 내 건천궁.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건천궁 주변에는 묘한 불빛을 구경하려 나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하는가 싶더니 눈부신 빛을 발하자 남녀노소 활젓듯이 탄성을 질렀다. 생전 처음보는 불빛의 엄청난 밝기에 놀라 도망가거나 이리저리 숨는 구경꾼도 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열전등이 켜진 순간이었다.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명한 지 8년 만에 조선의 궁궐에도 전등이 켜진 것이다.

조선 땅에 전기를 가지게 되면서 빛을 발하는 전기장치가 에디슨전등회사였다. 전기기사 윌리엄 매케이가 경북궁 향원정 다리와 우물의 중간지점에 증기발전기를 설치했다. 향원정 연못에서 취수해 석탄연료의 증기동력으로 운전했다. 발전기의 규모는 3kW에 불과했지만 전통보다도 더 큰 충격파를 던졌다. 궁을 밝힌 전등은 1900년 종로에 조영몽으로, 다음 해에는 진고개 상가와 유덕가에 상업용으로 공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정필수 사회기장팀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禎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기획·경영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여구독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